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의 통시적 고찰

: ㄹ 비음화와 통계적 방법론

신 성 철(순천대)

< 목 차 >

1. 서론
2. 연구 대상 및 기존 논의 검토
3. 중세국어의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
4. 근대국어의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
5. 결론: 요약 및 제시

국문초록

이 글은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이 통시적으로 하나의 음운 현상이며, 첫째, 동일한 음운 환경의 다양한 어휘로 확산되는 흐름, 둘째, 새로운 음운 환경으로 전파되는 흐름과 같이, 이종의 확산 추이가 단계적 내면적 과정에 따라 진행됨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두의 ㄹ→ㄴ 현상(이하, ㄹ 두 음법칙)과 어중의 ㄹ→ㄴ 현상(이하, ㄹ 비음화)은 입력형과 출력형이 도출되는 방향(ㄹ→ㄴ)이 같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음운이 앞에 있고, 영향을 받는 음운이 뒤에 놓이는 순행적 현상이라는 공통점도 지닌다. 특히 어두의 휴지 ‘#’과 어중의 자음 ‘C’를 하나의 적용 환경으로 파악되므로, 이 두 현상은 하나의 음운 현상인 것이다. 두 현상의 통시적인 빈도와 비율 변화에서는 동일한 확산 추이와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ㄹ 비음화의 확산 추이가 16세기의 중앙 문헌에서는 완만한 확산 경향, 지방 문헌에서는 급속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17세기에는 각각 급속한 상승세, 90% 이상의 확산 유지 경향, 18세기에

는 중앙 문헌이나 지방 문헌에서 90% 이상 유지되는 확산 경향으로 나타난다. ㄹ 두음법칙에서도 이러한 빈도와 비율의 확산 추이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ㄹ 두음법칙이 높으면 ㄹ 비음화도 높고, ㄹ 두음법칙이 낮으면 ㄹ 비음화도 낮게 나타나는 비례적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두 현상은 별개의 음운 현상이 아니며, 휴지 ‘#’과 자음 ‘C’가 음운론적 조건으로 참여한 하나의 음운 현상인 것이다. 특히 휴지 ‘#’과 비음 ‘o, ɔ’ 뒤의 ‘ㄹ→ㄴ’ 현상은 15세기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ㄹ 두음법칙이 나타나는 음운 환경을 기호화하면 ‘#ㄹ’이며, ㄹ 비음화는 ‘C\$ㄹ’이 된다. 다음과 같이 통합되며, 명칭은 ‘ㄹ 비음화’의 외연을 넓혀 적용한다.

1) 소위, ㄹ 두음법칙(어두의 ㄹ→ㄴ 현상)

ㄹ → ㄴ / # _

2) ㄹ 비음화(어중의 ㄹ→ㄴ 현상)

ㄹ → ㄴ / C _

통합) ㄹ 비음화 현상

ㄹ → ㄴ $\left\{ \begin{array}{l} C \\ \# \end{array} \right\} _$

핵심어 : ㄹ 두음법칙, ㄹ 비음화, 통계적 방법론, 확산 추이, 상관관계

1. 서론

이 글에서는 어두와 어중에서 발생하는 ㄹ→ㄴ 현상이 통시적으로 하나의 음운 현상이며, 음운 변화에 나타난 점진적 확산이 각 음운 환경으로 전파되는 내면적 과정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국어사 문헌별로 용례의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는 계량화 방법을 이용하고자 하며, 그 결과를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의 발생 과정과 확산 추이 등과 함께 각 음운 환경에 나타난 상관관계 등을 살펴보는 통계적 방법론을 시도할 것이다.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은 현대국어에서 개별적인 음운 현상으로 설명되는 두 개의 음운 규칙을 의미한다. 먼저, 어두의 ㄹ→ㄴ 현상은 현대국어에서 ‘남발(濫發, 람→남), 노인(老人, 로→노)’ 등처럼 어두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소위 ‘ㄹ 두음법칙’을 말한다. 그리고 어중의 ㄹ→ㄴ 현상은 현대국어에서 ‘강릉(江陵, [강능]), 범람(汎濫/汎濫, [범:남]), 판단력(判斷力, [판단 녉])’ 등처럼 선행한 음절이 자음으로 끝날 때, 후행한 음절초 ‘ㄹ’이 ‘ㄴ’으로 바뀌는 ‘ㄹ 비음화’를 가리킨다.

그런데 어두의 ㄹ→ㄴ 현상이 15세기 문헌에서는 한두 어휘의 용례로 나타나며, 16세기의 중앙 문헌에서는 완만한 확산 경향, 지방 문헌에서는 급격한 상승세, 17세기에서는 각각 급격한 상승세, 90% 이상의 확산 유지 경향, 18세기에서는 각각 90% 이상의 확산 유지 경향, 이전 시기의 경향 유지라는 확산 추이를 보이는데,¹⁾ 어중 ㄹ→ㄴ 현상의 여러 음운 환경에서도 동일한 추세가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어사 문헌 자료의 해당 용례를 계량화하여, 그 빈도와 비율 등을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최적의 해석을 찾게 될 것이다. 더불어,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이 통시적으로 하나의 음운 현상이라는 가정 증명, 그리고 점진적 확산이 각 음운 환경으로 전파되는 내면적 과정 등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대상 및 기존 논의 검토

2.1. 연구 대상

어두와 어중에서 발생하는 ㄹ→ㄴ 현상에 관련된 표기 변화는 15세기 문

1) 자세한 내용은 신성철(2018: 173)을 참조할 수 있다.

헌 자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어두 ㄹ→ㄴ의 현상은 주로 16세기 초기부터 나타나서 16세기 후기에 확대되며, 17세기에는 대부분의 용례에서 반영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어중 ㄹ→ㄴ의 현상도 주로 16세기에 발생하여 16세기 후기에 확대되며, 17세기에는 대부분의 용례에 반영되는 확산 과정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에 대한 연구는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문헌에서 매우 세밀히 연구되어야 한다. 15세기 국어도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이 매우 제한된, 한두 어휘에서 나타나지만, 음운 현상의 초기 과정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선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근대국어에서의 진행 과정을 명확히 살피기 위해서는 18세기 문헌 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5세기부터 18세기 간행된 문헌 자료가 연구 대상이 된다.²⁾ 단지, 16, 17세기에는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16, 17세기의 문헌 자료는 저자 1인 등 소수가 관여된 문헌, 지방에서 간행된 문헌까지 확대한다. 15세기와 18세기 자료는 국어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초간본뿐만 아니라 원간본의 체재와 언해 등이 달라진 중간본도 포함한다. 계량화를 위한 용례 검색은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언어분과에서 구축한 역사 자료 말뭉치를 이용한다. 단지, 언해문에 새롭게 한자를 입력한 경우도 있고, 한자의 음을 새로이 입력한 경우, 입력 자료 수정 등도 있어서 역사 자료 말뭉치와 다른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검색 프로그램은 깜짝새(SynKDP 1.5.5)를 사용한다.

2.2. 기존 논의 검토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에 대해서는 일찍이 20세기 초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하나, 지금까지 연구된 대부분의 논의는 현대국어 등의 공시적인 현상을

- 2) 현대국어에서는 두 현상이 주로 한자어에서 적용되므로, 연구 대상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논의에서도 국어사 문헌 자료의 한자어에만 한정된다. 한편, 19세기 간본 자료는 주로 19세기 후기에 분포되어 있으며, 19세기 전반기 문헌에는 초간본이 드물다. 자료의 동질성과 연속성 등의 문제로 이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그리고 통시적 현상에 관련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중세국어에 대해서는 허웅(1958, 1964), 이기문(1961, 1972, 1978) 등에서 논의되며, 어두의 ㄹ→ㄴ 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조규태(1999, 2009), 신성철(2018) 등에서, 어중의 ㄹ→ㄴ 현상에 대해서는 신성철(2017) 등에서 주로 다루어질 뿐이다. 어중의 ㄹ→ㄴ 현상과 관련된, 유음화 관련 통시론적 논의까지 확장한다면 오종갑(1988), 김혜영(1996), 이진호(1998), 이동석(2005), 신성철(2014, 2015) 등이 포함되지만 현대국어나 공식적 연구의 편수에 비하면 소박한 편이다.

이기문(1961: 126)에서는 후기 중세국어의 한자음에서 어두의 ㄹ→ㄴ 현상이 중세국어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며, 이기문(1972: 131)에서는 ‘ㄹ’이 어두에 올 수 없는 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고 한자어에서도 ‘ㄹ’이 ‘ㄴ’으로 변하는데, 그 용례로 15세기의 ‘ㄴᄃᆞᆫ, ㄴᄃᆞᆫ(來日)과 16세기의 ‘ㄴᄃᆞᆫ(李小兒), ‘ㄴᄃᆞᆫ(老母), ‘ㄴᄃᆞᆫ(禮節) 등을 제시한다. 이기문(1978: 100-102)에서는 한자어는 위치에 따라 발음이 변한다고 하면서, 어중에서의 ‘ㄹ’의 ‘ㄴ’ 표기는 15세기 중엽 문헌에서는 ‘상례’(常例) 정도가 있을 뿐이지만 16세기에는 거의 오늘날과 같은 표기 변화가 나타나며, 어두의 ㄹ→ㄴ 현상도 15세기에는 ‘ㄴᄃᆞᆫ(來日)이 있고, 16세기에는 『변역박통사』와 『변역소학』, 『훈몽자회』에서 이러한 표기가 보이는데, 실제 발음이 반영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허웅(1958, 1964)에서도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이 중세국어에서 이미 완성된 것으로 기술된다. 특히 중세국어의 어두 ㄹ→ㄴ 현상에 대해 허웅(1958: 183)에서는 15세기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허웅(1964: 380)에서는 ‘語頭 ㄹ’은 語源 意識의 所致로 기술한다. 허웅(1958, 1964)과 이기문(1961, 1972, 1978)의 논의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또는 중세국어, 현대국어 각각에 대한 논의일 뿐,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아니다. 특히, 한자음의 어두 ㄹ→ㄴ 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까닭에 ‘한글 맞춤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당연한 혹은 발음상 설명 일부 두음법칙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표기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한자음 전반에 관한 혼란도 없었으나 도리어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임동석 2011: 2)³⁾는 억지스러운 주장까지 제기되기에 이른다.

현대국어어 대상으로 어두의 ㄹ→ㄴ 현상에 대한 논의는 배양서(1973), 성낙수(1987), 김주필(1995), 김동례(1997), 배주채(2003), 엄태수(2007), 김정남(2009), 박덕유(2011), 김성옥(2014), 여채려·김양진(2015) 등에서 진행된다. 대부분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 조항과 관련된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어두의 ㄹ→ㄴ 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조규태(1999, 2009), 신성철(2018) 등에서 진행된다. 조규태(1999: 296-297)에서는 15세기 이래로 한자어에서 원음 ‘ㄹ’이 모두 ‘ㄴ’ 음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조규태(2009: 77-84)에서는 발음은 16세기 후반부터 ‘ㄴ’으로 나타난 것이며, 표기는 18세기에 확립된 것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이 두 논의는 통시적 변화 과정을 살핀다는 점에서 기왕의 논의와 구분되지만, 논의된 견해는 기존의 것과 다르지 않다. 한정된 문헌 자료와 한정된 어휘, 즉 사람 이름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어중의 ㄹ→ㄴ 현상에 대한 논의는, 먼저 현대국어어 대상으로 김진우(1976), 배양서(1979), 서보월(1991: 70-100), 김주필(1995), 이진호(2008) 등에서 연구가 진행된다.³⁾ 그리고 어중의 ㄹ→ㄴ 현상에 대한 통시적 접근은 신성철(2017) 등에서 이루어진다. 신성철(2017: 79-80)에서는 중세국어어와 근대국어어에서 적용된 어중 ㄹ→ㄴ 현상의 적용 시기와 확산 과정이 어휘 종류와 음운 환경, 즉 각 자음의 연쇄에 따라서 동일한 추세 안에서 상이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규명하면서, ‘C-L’ 표기 유형의 발생 과정을 살펴본 결과, 어중의 ㄹ→ㄴ 현상이 어휘나 음운 환경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산된다는 견해를 제기한다.

한편, 어두와 어중의 ㄹ→ㄴ에 대해서 김주필(1995: 69-76)에서는 현대국어어 대상으로 어두와 어중의 ㄹ→ㄴ이 동일한 기제를 가진다는 견해를 제

3) 현대국어어의 어중의 ㄹ→ㄴ 현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주필(1995)과 이진호(2008)를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국어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기하면서,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휴지 ‘#’도 후행 자음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듯이, 어두(ㄹ 두음법칙)와 어중(ㄹ 비음화)의 ‘ㄹ→ㄴ’의 현상이 하나의 현상이라는 견해를 제기한다. 그런데 변용우(2004: 207-211), 엄태수(2007: 260-266)에서는 김주필(1995)의 견해와 달리 각각의 개별적인 음운 현상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김주필(1995) 등의 세 논의는 모두 현대국어어 대상으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만, 상이한 주장에 도달한 것이다.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이 함께 분석된 연구는, 김주필(1995)의 견해를 연구사 부분에서 단순히 제시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세 논의가 전부이다. 상이한 견해가 대응되고 있어서, 어느 견해가 옳은지 검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현대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김주필(1995) 등에 제기된 견해 이상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국어의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은 이미 완성된 음운 현상이므로, 견해 또는 가설 제시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선별 자료의 제시라는 구조로는 ‘하나다’와 ‘아니다’라는 평행적 의견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주필(1995: 69-76)은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이 하나의 음운 현상이라는 가정을 실제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며, 변용우(2004: 207-211), 엄태수(2007: 260-266)는 김주필(1995)의 가설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용례를 제시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할 뿐,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이 별개의 음운 현상임을 증명하는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평행적 의견의 연속이라는 부분을 무너트릴 대안이자 해결책으로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의 통시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중세국어의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

3.1. 15세기의 ㄹ→ㄴ 현상⁴⁾

4) 어두의 ㄹ→ㄴ 현상이 적용될 음운 환경은 ‘#ㄹ’로 표시된다. ‘#ㄹ’은 어두의 음절 초를 가리키는 음소 배열이며, ‘#ㄴ’도 가능하나 ‘\$’는 잉여 요소이다. 음소 단위로

15세기 문헌에서 어두의 ㄹ→ㄴ 현상이 나타나는 용례는 ‘늑실, 너실’이다. 한자 ‘來日’에 대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⁵⁾

(1) 가. 오늘 아츰(今朝 我嫩阿怎), 너실 아츰(明朝 餞直阿怎)<조선관역어 7a>⁶⁾

나. 늑실<두초 6:14b>; 늑실<두초 9:21a><두초 21:31a>

다. 너실<두초 3:45b><두초 11:30a><두초 11:37b>; 너실<두초 19:43b><두초 25:55b><남명 上:40a>

라. 닝흐며 설흐며<구간 1:5a>⁷⁾

(1)은 15세기 문헌에서 나타난 어두 ㄹ→ㄴ 현상의 용례를 정리한 것이다. 한자 ‘來日’에 대응하는 ‘늑실, 너실’과 ‘솔’에 대응하는 ‘닝흐-’가 확인된다. 단지, (1가)처럼 중국어 ‘明朝’에 대해 ‘너실 아츰’이 대응되듯이, (1나,다)의 ‘늑실, 너실’도 한문 원문에서는 ‘明日’이나 ‘明朝’ 등에 대응되어서, 단순히 ‘늑실, 너실’이 한자 ‘來日’로 인식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언해문에 ‘來日日실’<월석 7:15b><월석 7:16a><삼강(런던) 孝:29><삼강(런던) 忠:18> 등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서, ‘明日’이나 ‘明朝’ 등에 대응되는 ‘來日’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신성철 2018: 162).⁸⁾

를 나타내는 ‘/’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다.

- 5) 15세기 문헌에서 고유어라고 증명하기 어려운 ‘러울, 라귀, 로새, 락닥, 라온’ 등의 어휘를 제외하면 어두의 ㄹ→ㄴ 현상이 적용된 용례는 한자어에서만 나타난다. 이들 어휘를 고유어로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신성철(2018: 155-156)을 참조할 수 있다.
- 6) 『朝鮮館譯語』는 『화夷역어(華夷譯語)』 중의 한 권이며,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회동관의 통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조선어 교재이다. 편찬 연대는 1403~1424년으로 보이며, 15세기 말~16세기 경에 부분적인 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이기문 1968: 62). 한편, 이기문(1968: 74)에서는 ‘늑실’로 해석하며, 강신항(1995: 58)과 권인한(1998: 110)에서는 ‘너실’로 풀이하는데, 후자의 형태를 받아들인다.
- 7) 『구급간이방』(1489)은 의학서이며, 을해자(乙亥字)인 원간본은 불전한다. 현재 전하는 중간본은 임진왜란 이전에 복각(復刻)된 것으로 추정된다.
- 8) ‘내일’과 ‘來日’의 15세기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신성철(2018: 162)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15세기 문헌에서 어중의 ㄹ→ㄴ 현상이 적용될 음운 환경은 ‘C\$ㄹ’로 기호화된다. ‘C\$ㄹ’은 음소 배열을 의미하며, 한자어의 음절말 자음은 폐쇄음 ‘ㄱ, ㅂ’, 비음 ‘ㄴ, ㅁ, ㅇ’, 유음 ‘ㄹ’만 가능하므로 ‘ㄱ\$ㄹ, ㅂ\$ㄹ’과 ‘ㄴ\$ㄹ’, ‘ㅁ\$ㄹ’, ‘ㅇ\$ㄹ’ 그리고 ‘ㄹ\$ㄹ’ 환경만 가능하게 된다. 단어 경계를 포함한다면, 즉 구 구조까지 확대한다면 ‘s#ㄹ’도 일정 가능하다(신성철 2017: 59-66). 15세기 국어에서 어중의 ㄹ→ㄴ 현상이 적용된 용례는 ‘ㅁ\$ㄹ’과 ‘ㅇ\$ㄹ’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어중의 ㄹ→ㄴ 현상이 적용될 수 있는, ‘C\$ㄹ’에 포함된 ‘ㄱ\$ㄹ’, ‘ㅂ\$ㄹ’, ‘(s#ㄹ)’이나, ‘ㄴ\$ㄹ’, ‘ㄹ\$ㄹ’ 환경 등에서는 후행의 ㄹ이 ㄴ으로 바뀐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⁹⁾

- (2) 가. 침노호<석상 20:29a, 4회>; 상네<석상 6:10a><월석 11:32a><육조 上:74a-4 외 53회><권공 10b 외 7회>, 常네<두초 11:50a>, 常녜<두초 11:36b, 2회>, 향노애<구간 2:71a>
- 나. 침로호<관음 8b, 2회>¹⁰⁾, 음란을<구간 6:72a>, 甘甘露로<육조 上:3a-5><권공 40b>, 侵침勞로<육조 中:63a-4>, 心심량량<육조 上:70b-7>, 金금爐로<권공 9b>; 풍류호야<석상 3:27b><월석 18:26a>, 經經論론<육조 中:98b-2>, 淸淸涼량<권공 26b>, 香향爐로<권공 10a, 2회>
- 다. 석류<구간 3:120b>, 숙령<구간 2:107b, 熟冷>, 석 량<구간 7:82b, 34회>, 녀 량<구급 上:50b><구간 7:85a, 33회>, 測측량량<육조 上:33a-3, 3회>, 玉玉龍룡<권공 27b>; 아홉 량과<구간 3:35b>, 十십六륙<육조 下:70a-8, 5회>, 法법雷뢰<권공 17a, 2회>; 닷 량<구간 7:18a, 15회>, 엇 량<구간 1:29a, 4회>
- 라. 천량<석상 3:39a><월석 12:20a>, 본릭<구방 상:22b>, 반 량<구간 7:03a, 81회>, 혼 량<구간 7:11a, 225회>, 官官僚료<육조上17b-2, 7

9) 신성철(2017: 59-66)에 제시된 용례를 인용한 것이다.

10) 『관음경언해』(1485)는 『불정심경언해』, 또는 『불정심다라니경언해』로도 불린다. 3권 1책이며, 목판본인 한문본과 활자본인 언해본이 합철된 것이다.

회>, 本본래리<육조 上:89b-8, 29회><권공 45b, 5회>, 善선根근기
력<권공 15a>

마. 지벗 사르미 알 리 업거늘<원각 서:43b>, 我 헐 리 이소물<원각 하
3-1:57a>, 부터 알 리 업스니<법화개 1:44a>, 節절썩락<육조
序:7a-6>, 寂寂滅멸樂락<육조 中:93b-4>, 出출승령<권공 17a>, 一
일輪륜<권공 45b>¹¹⁾

(2가)는 한자어에서 후행의 ㄹ이 ㄴ으로 바뀐 용례이며, (2나)는 한자음에 변화가 없는 용례이다. (2나)에는 당시 실제 한자음, 즉 동음(東音)을 기초로 한자어를 표기한 『육조법보단경언해』(1495)와 『시식권공언해』(1496)의 용례도 제시한 것이며, (2다, 라, 마)는 ‘ㄱ\$ㄹ’, ‘ㅂ\$ㄹ’, ‘(ㅅ#ㄹ)’과 ‘ㄴ\$ㄹ’, ‘ㄹ\$ㄹ’¹²⁾ 등의 용례이다. (2)에서 보듯이 어중의 ㄹ→ㄴ 현상이 반영된 용례는 ‘ㄹ\$ㄹ’, ‘ㅇ\$ㄹ’ 환경에서만 나타난다.¹³⁾ 폐쇄음 부류인 ‘ㄱ\$ㄹ’, ‘ㅂ\$ㄹ’, ‘(ㅅ#ㄹ)’¹⁴⁾이나 ‘ㄹ\$ㄹ’, ‘ㅇ\$ㄹ’과 같은 비음 부류로 묶이는 ‘ㄴ\$ㄹ’ 그리고 유음 부류인 ‘ㄹ\$ㄹ’에서는 어중의 ㄹ→ㄴ 현상에 의한 표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어중의 ㄹ→ㄴ 현상이 반영된 용례라 할지라도 ‘ㄹ\$ㄹ’ 연쇄에서는 ‘침노ㅎ-’, ‘ㅇ\$ㄹ’은 ‘샹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두의 ㄹ→ㄴ 현상이

11) 의존 명사 앞의 단어가 고유어이지만, ‘ㄴ→ㄹ’의 변화를 겪는 부분(예> 량(兩), 리(理) 등)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로 제시한다.

12) ㄹ\$ㄹ 환경의 한자어 용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ㄹ\$ㄹ 환경은 고유어에서도 가능하며, 해당 용례가 매우 많다. 신성철(2015: 116-121)에서는 고유어에서 나타난 ㄹ-ㄴ 유형의 확산을 순행적 유음화를 전제로 하는 표기가 아니며, ㄹ 비음화가 ‘폐쇄음, 비음’뿐만 아니라 ‘유음’ 환경까지 확산되는 마지막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파악한다. 자세한 것은 신성철(2015)를 참조하기 바람,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13) 현대국어 ‘침노(侵虜)’에 대응되는 ‘침노’가 발견된다. 중세국어의 ‘侵침虜’ <월석 25:29a><금삼 3:59b>와 ‘侵침虜’ <육조 中:63a-4>를 비교하면 대응 한자가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신성철(2017: 63-64)를 참조할 수 있다. 단지, 현대국어의 ‘침노’를 보면 어원을 잃었다가 후대에 ‘虜’에 대응된 것으로 판단된다.

14) 중세국어의 음절말 ‘ㅅ’과 ‘ㄷ’의 음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음절말 ‘ㅅ’이 현대국어에서 [ㄷ]으로 발음되므로, 폐쇄음 부류인 ㄱ\$ㄹ, ㅂ\$ㄹ 환경과 함께 제시한다.

적용된 ‘늑실, 닢실’에 대응되는 ‘르실, 리실’이 15세기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듯이, ‘상네’에 대응되는 ‘상례’가 15세기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3.2. 16세기의 르→ㄴ 현상

15세기 문헌에서는 어두와 어중의 르→ㄴ 현상의 반영 용례가 특정 어휘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계량화되지 못한다. 그러나 16세기 문헌에서는 문헌에 따라 다양한 어휘에서 나타나고, 변화 단위도 두 자릿수 이상 나타나서, 계량화 작업이 가능하다. 어두와 어중의 르→ㄴ 현상에 대한 빈도를 산출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16세기 문헌의 용례 계량화

음운 환경	ㄱ\$ㄹ		ㅂ\$ㄹ		ㄹ\$ㄹ		ㄴ\$ㄹ		ㅇ\$ㄹ		ㅇ\$ㄹ		#ㄹ	
	표기 ㄱㄹ	ㄱㄴ	ㅂㄹ	ㅂㄴ	ㄹㄹ	ㄹㄴ	ㄴㄹ	ㄴㄴ	ㅇㄹ	ㅇㄴ	ㅇㄹ	ㅇㄴ	ㄹ	ㄴ
『속삼강행실도』 (1514)												2	2	
『변역노경대』 (1517 이전)	12	1	11		3		24				1	5	32	12
『변역박봉사』 (1517 이전)	3		5		3		17				7	10	33	10
『창진방략요』 (1517)	13	9	1		1		24			2	19	7	32	10
『여씨향약연해』 (1517)	4		17		8		(ㄹㄹ:1)		1		9	4	33	2
『이품행실도』 (1518)							1 (ㄹㄹ:2)				12	5	35	10
『정속언해』 (1518?) ¹⁵⁾		1					1 (ㄹㄹ:5)					10	5	12
『변역소항』 (1518?) ¹⁶⁾	19	1	1		2		38 (ㄹㄹ:3)	1	9		25	24	184	40
『분문은역이해 방』(1542)	14				2		16				2	1	18	
『초발심자경문 연해』(1577)		2	1				6		1	1	3	12	6	20
『소학언해』 (1588)	30	3	1	2	2		45 (ㄹㄹ:2)	2	15	5	18	38	329	33

15) 현전하는 ‘이주원교수본’ 『정속언해』는 1518년의 원간본인지 정확하지 않다. 어두와 어중의 르→ㄴ 현상으로 보면 16세기 중기 이후의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세

『번역노걸대』(1517 이전):

가. ●#ㄹ □ㄴ: 난구허기<上:3a, 聯句, 2회>, 녀근<下:38a, 蓮根(藕菜)>, 니천<上:14b, 4회>, 니실<上:22b, 4회>, 니일<上:37b>.

나. ●#ㄹ □ㄹ: 란간<下:36a, 欄干/欄杆>, 람 고로와로<下:51a, 藍綾子>, 람비단<下:52b, 藍緋緞>, 런디<下:69a, 帶帶>, 레기<下:70a, 禮記>, 레수<上:64b, 禮數>, 레 받조<上:63b, 受禮>, 레지<下:39b, 荔支>, 령꽃<下:25b, 蓮花>, 로각으로<下:68a, 鹿角>, 료동으로셔<下:60b 遼東>, 룡안<下:38b, 龍眼>, 류황비체<下:24b, 硫黃>, 류청<下:28a, 柳靑>, 류위릭<上:27b, 六月>, 류청비챗<下:24a, 柳靑>, 류엽전<下:32b, 柳葉箭>, 룩촌<上:16b, 六寸, 2회>, 리천<下:60a, 2회>, 립신<下:42b, 立身>, 리러기<上:51b, 來歷>, 리실<上:57a, 8회>, 링뜨레<下:40a, 冷物>¹⁷⁾.

다. ●C\$ㄹ □C\$L: 이삭딕녕에<下:51a, 直領>, 상네<下:2b>, 상넛<下:44a>, 상넛<上:32a, 3회>.

라. ●C\$L □C\$L: 석류<下:39b, 石榴>, 딕형이오<下:51b, 直領>, 닉 량<上:14b, 3회>, 일빅 량<下:64b, 2회>, 석 량<上:14b, 5회>; 닛곱 량<下:28b, 2회>, 범령과<下:49a, 法令>, 십 릿<上:26a>, 십 리<上:59b, 2회>, 시십 릿<上:10a>, 열여둠 량<下:66a>, 슝여둠 량<下:64b>, 여둠 량<下:21a>, 시십 리<上:29b>; 혼 량<上:14a, 5회>, 쉰 량<下:59a>, 아흔 량<下:64b>, 설흔 량<下:50b>, 안롱<下:46b, 鞍籠>, 여든 량<下:12b>, 일만 량<下:5b>, 예순 량<下:12b, 2회>, 마슨 량<下:13a>, 마슨 량<下:51a>, 천량<上:15a, 3회>, 천 리<上:44a>, 만 리<上:44a>, 연류황비체<下:25b>¹⁸⁾; 열

한 내용은 신성철(2018: 166-167)을 참조할 수 있다.

16) 현전의 『번역소학』은 『소학언해』 간행 이전 시기에 복각된 중간본이다. 주지의 내용처럼, 원본 그대로 복각하지 않은 듯하므로 그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17) ‘김과 사와 로달’ <齋老 下:27b, 綾絹紗羅>의 ‘로’는 중국 차용어이나 15세기 문헌에서 ‘비단과 노와 김과’ <월석 23:72b> 등처럼 이미 ‘노’로 표기되었던 것이어서 제외한다.

18) ‘L\$ㄹ’ 연쇄에 ‘턴릭’ <下:51a, 2회>이 포함되나, 몽골어 차용어이므로 제외하였다. 『번역박통사』에서는 ‘털릭’ <51b, 7회>으로 나타난다. 한편, ‘천량’ <上:15a, 3

(3)은 16세기 문헌에서 어두인 '#ㄹ'과 어중의 'C\$ㄹ'에서 ㄹ→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빈도를 앞칸에, 일어난 빈도를 뒤 칸에 각각 제시한 것이다.²⁰⁾

먼저, 『번역노걸대』(1517 이전)에 나타난 어두의 ㄹ→ㄴ 현상을 살펴본다. 15세기 문헌에서 어두의 ㄹ→ㄴ 현상이 적용된 용례가 한자 '來日'에 대응되는 '니실, 느실'이었는데, 이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3가)는 어두의 ㄹ→ㄴ 현상이 적용된 것인데, 15세기의 '니실'이 그대로 계승되면서 '년구'와 '니천'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나)에서 보듯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어휘는 어두의 ㄹ→ㄴ 현상이 적용된 어휘보다 그 수가 다양하며, 15세기 문헌에서 보이지 않던 '리실'도 나타난다. (3가)를 15세기의 자료와 대비하면 점차 확산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러나 확산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그 비율도 25% 정도이다. 반복된 어휘를 하나로 치환한 어휘 개수로는 (3가)가 3개, (3나)가 21개이어서, 더 낮은 12.5%를 보인다.

『번역노걸대』(1517 이전)의 어중 ㄹ→ㄴ 현상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드러난다. 15세기 문헌에서 어중의 ㄹ→ㄴ 현상이 적용된 용례는 한자 '常例'에 대응되는 '상례'인데, 이 문헌에서도 '상례'가 보인다. 그러나 어두의 ㄹ→ㄴ 현상과 달리, 〇\$ㄹ 환경의 어중 ㄹ→ㄴ 현상이 다른 어휘로 확대되는 현상

회>은 중국어 차용어이나, 어원이 '錢糧'으로 알려져 있어 포함한다.

19) 단위 의존 명사 '량(兩)과 '리(里)는 단어 단위가 아닌 구 단위의 경우이지만, 하나의 발화 단위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용례에 포함한 것이다. '량(兩)은 현대 국어에서 '냥(兩)으로 변하지만, '리(里)는 그대로이다. 한편, '야청로' <飜老下:51a, 鴉青羅>, 폰 류청로 <飜老下:51a, 柳綠羅>에서 〇\$ㄹ 연쇄가 확인되지만 '羅'에 대응하는 '로'는 주17)에서 언급되듯이 이미 '노'로 사용되던 것이라 빈도와 용례에서 제외한다.

20) 각 용례를 제시하지 않고 『번역노걸대』(1517 이전)의 용례만 제시하는데, 각 문헌별 용례의 수치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면 상의 부족에 기인하며, 의미 있는 용례만 간추려 제시하더라도 분량이 넘친다. 용례의 산출 과정과 해당 용례의 면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번역노걸대』(1517 이전)의 용례를 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은 확인되지 않고, ㄱ\$ㄹ 환경에서의 어중 ㄹ→ㄴ 현상이 새롭게 등장한다. 한자 ‘直領’에 대응되는 ‘딕녕’은 어중의 ㄹ→ㄴ 현상이 ㄱ\$ㄹ 환경으로 확산된 것이다.

15세기 문헌에서는 모든 문헌에서 해당 어휘 용례가 나타나지 않지만, 16세기에는 그 영향력이 강화되어 대부분의 문헌에서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이 반영된 용례가 나타난다. 그런데, 각 음운 환경에 보이는 어휘적 확산뿐만 아니라 다른 음운 환경으로 전파되는 확산 과정도 나타난다.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이 15세기에는 ‘#ㄹ’과 ‘ㅇ\$ㄹ’ 환경 등에서 매우 제한적인 어휘에 나타나며, 16세기에는 다양한 어휘로 확산되는 한편, ‘#ㄹ’과 ‘ㅇ\$ㄹ’ 환경 등이 ‘ㄱ\$ㄹ’ 환경 등으로, 즉 다른 음운 환경으로 확산이 전파되는, 이종의 확산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추세는 빈도보다는 비율로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4) 16세기 문헌의 ㄹ→ㄴ 현상 관련 비율

음운 환경	어두 /#ㄹ/			어중 /C\$ㄹ(ㅇ\$ㄹ)/			전체		
	ㄴ	ㄹ	비율(%)	C-ㄴ (ㅇ-ㄴ)	C-ㄹ (ㅇ-ㄹ)	비율(%)	ㄹ→ㄴ	ㄹ→ㄹ	비율(%)
『속삼강경 실도』 (1514)	-	2	-	2(2)	-(-)	-	2	2	-
『변역노경 대』 (1517 이전)	12	32	27.3	6(5)	51(1)	10.5(83.3)	16	83	16.2
『변역백동 사』 (1517 이전)	10	33	23.3	10(10)	42(7)	19.2(58.8)	20	75	21.1
『왕진방팔 초』 (1517)	10	32	23.8	18(7)	58(19)	23.7(25.9)	28	90	23.7
『여씨향약 연해』 (1517)	2	33	5.7	4(4)	40(9)	9.1(30.8)	8	73	9.9
『이문행설 도』 (1518)	10	35	22.2	5(5)	15(12)	25.0(29.4)	15	50	23.1
『정속연해』 (1518?)	12	5	70.6	11(10)	6(0)	64.7(100)	23	11	67.6
『발역소학』 (1518?)	40	184	17.8	26(24)	97(25)	21.1(49.0)	66	281	19.0
『분문운역 이해방』(1521?)	0	18	0	1(1)	34(2)	2.9(33.3)	1	52	1.9
『초발심자 경문연해』(1527)	20	6	76.9	15(12)	11(3)	57.7(80.0)	35	17	67.3
『소학연해』 (1588)	33	329	9.1	50(38)	113(18)	30.7(67.8)	83	442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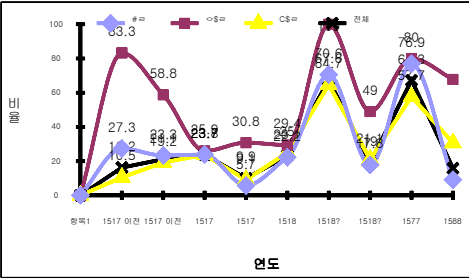
- 『속삼강행실도』 ●○\$ㄹ □○-ㄴ: 상네, 향니(鄉吏).
- 『번역노걸대』 ●○\$ㄹ □○-ㄴ: 상네, 상넛, 상넛(3회). □○-ㄹ: 상류.
- 『번역박통사』 ●○\$ㄹ □○-ㄴ: 상넛(7회), 풍뉴(3회). □○-ㄹ: 령릉허, 명록
빗채(3회), 왕리, 청류리오, 풍류.
- 『장진방찰요』 ●○\$ㄹ □○-ㄴ: 량녕(涼冷), 상네, 상넛(3), 황년(黃連), 황늘
(黃栗). □○-ㄹ: 망량(5회), 싱룡노(生龍腦), 오장륙부(5회),
청량(淸涼, 4회), 황련(黃連, 3회), 빙량(檳榔)²¹⁾. 참고) 룡로
롄(龍腦).
- 『여씨향약언해』 ●○\$ㄹ □○-ㄴ: 상네(3회), 상넛. □○-ㄹ: 강레티, 강론허
-(2회), 동력허-, 동렬이, 상륙, 청림, 횡레허-(2회).
- 『이륜행실도』 ●○\$ㄹ □○-ㄴ: 상네(3회), 장니(贓吏), 풍뉴. □○-ㄹ: 둥랑간
(中郎諫), 양림하(楊臨賀), 왕람(王覽, 7회), 왕림(王琳, 3회).
- 『정속언해』 ●○\$ㄹ □○-ㄴ: 당니(長利), 상네(6회), 성녕(性靈), 청념(淸
廉), 풍뉴소리.
- 『번역소학』 ●○\$ㄹ □○-ㄴ: 講尙論논, 동뉴엣[同類], 仲鄧郢녕이, 망녕[妄
靈], 상네[常例], 상늑[雙六], 장니[贓吏], 청념[淸廉], 향닐[行
列]. □○-ㄹ: 江尙祿록이, 講尙論논, 大대祝축奉봉禮례란, 동
렬잇, 郎郎中鄧승령, 柳柳仲鄧郢령이, 망량으로, 망령, 명리며,
상례, 상륙을, 청림, 平평陵릉, 풍류, 黃황連連과.
- 『분문운역이해방』 ●○\$ㄹ □○-ㄴ: 상네. □○-ㄹ: 유광려귀(游光厲鬼), 영
류금방(永類金方).
- 『초발심자경문언해』 ●○\$ㄹ □○-ㄴ: 能능禮례, 功功力력, 명니(名利), 상
네, 松송落낙, 衆중寮寮, 證證論논, 향닐(行列). □○-
ㄹ: 응량기(應量器), 生生理리, 往往來來.

21) 이 문헌은 김안국이 왕명을 받아 내의원(內醫院), 혜민서(惠民署) 등의 여러 의
관, 의생과 함께 만든 것으로, 중앙에서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번역노걸대』,
『번역소학』 등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는데,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의학서
류인 『장진방찰요』(1517)과의 차이점은 ‘중인’ 계층의 의관, 의생이 참여한다는
점이므로, ‘중인’ 계층인 의관과 의생으로 인하여 보수적인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헌은 그래프에서 제외된다.

22) 현대국어로는 ‘빙량(檳榔)’이지만, 표기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소학언해』 ●○\$ㄹ □○-ㄴ: 강논티, 동뉴에[同流], 둥녕(仲野), 망녕되-, 상네[喪禮], 상늑, 상네, 청넙ㅎ-, 풍뉴, 황난히. □○-ㄴ: 강록(江祿)이, 강론ㅎ야, 동렬(同列)을, 동류로, 류둥령(柳仲野)이, 랑둥령(郎中令)이, 대축봉례(大祝奉禮)의, 빙례흙은, 상례, 장리(贓吏)스, 청렴ㅎ-, 평릉(平陵)의, 풍류와, 황련(黃連)과.

(4)는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을 '#ㄹ'과 'C\$ㄹ'로 구분하여 해당 어휘의 빈도와 비율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C\$ㄹ'에 괄호로 친 '○\$ㄹ'은 15세기 문헌에서 ㄹ→ㄴ 현상이 반영된 '상네'가 널리 나타나기 때문에, 어두의 확산 과정과 가장 밀접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4)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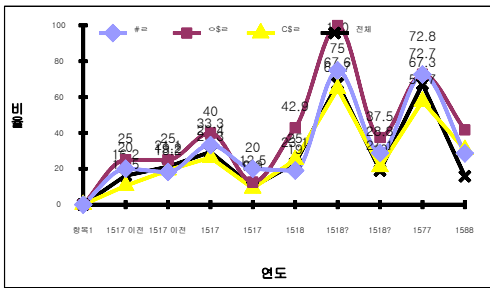


에 제시된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에 대한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드러난다. 먼저, 『정속언해』와 『초발심자경문언해』에서 어두의 ㄹ→ㄴ 현상이 70% 이상 나타나는데, 어중의 ㄹ→ㄴ 현

상에서도 60% 전후로 발생한다. 나머지 문헌에서는 어두의 ㄹ→ㄴ 현상이 20% 전후로 발생할 때, 어중에서도 대부분 20% 내외로 나타난다. 어두의 ㄹ→ㄴ 현상이 높으면 어중도 높고, 어두가 적으면 어중도 적게 발생하는 비례적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특히, 어두와 '○\$ㄹ'의 ㄹ→ㄴ 현상은 15세기부터 한두 어휘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서, 즉 비슷한 시기부터 발생한 까닭에 두 환경 사이에 비례적 상관관계가 더 잘 드러난다. 단지, (4)에 제시한 해당 어휘의 비율로는 비례적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번역노걸대』에서 각각 27.3%과 83.3%, 『번역박통사』 23.3%, 58.8%, 『여씨향약언해』 5.7%, 30.8%, 『정속언해』 70.6%, 100%, 『소학언해』 9.1%, 67.8% 등으로 최대 60%의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용례가 적게 나타나거나 동일 어휘가 여

러 번 반복되는 경우라면 빈도와 비율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ㄹ’과 ‘ㄴ’이 표기된 용례의 총 합계가 15개 이하인 문헌이라면 그 변화의 폭은 매우 넓으며, 동일한 어휘가 반복된 숫자가 클 때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²³⁾ 이러한 경우라면 세밀한 추세를 살펴보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그 둘을 정확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허수, 즉 여러 번 반복된 특정 어휘와 여러 한자어에 사용된 한자를 각각 하나로 치환하는 단순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빈도와 비율을 재계산해야 한다. 한자어에서 반복된 어휘를 하나로 치환한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6세기 초기 문헌에서는 ‘#ㄹ’과 ‘ㄴ’에서 20% 내외의 비율을 보이거나 16세기 중후기 문헌으로 오면 30%에서 70%까지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6세기 초기는 어두와 어중의 ㄹ→

ㄴ 현상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인데, 주로 ‘#ㄹ’과 ‘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CSㄹ’ 환경에서는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16세기 후반기에는 문헌에 따른 큰 격차가 나타난다. 『정속언해』와 『초발심자경문언해』에서는 양쪽에서 70%가 넘는데, 『번역소학』이나 『소학언해』에서는 30% 전후의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격차는 문헌의 간행지라는 문헌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속언해』²⁴⁾와 『초발심자경문언해』는 개인어나 중앙 이외의 방언(≒ 지방 방언)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²⁵⁾ 『정속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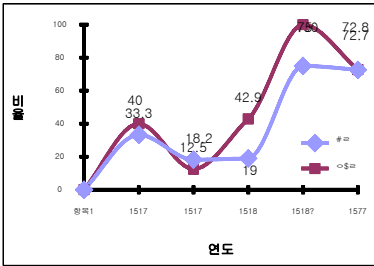
23) 예를 들어, 『소학언해』에는 ‘례(禮)와’ <辭, 1a> 처럼 ‘례(禮)’가 76회 가장 반복되어 나타난다.

24) 이 문헌은 경상도 관찰사인 김안국이 간행한 것으로,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이 아니다. 특히, 최소한 김안국의 개인어가 반영되거나, 간행 지역인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정속언해』가 16세기 후반기 문헌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주 15)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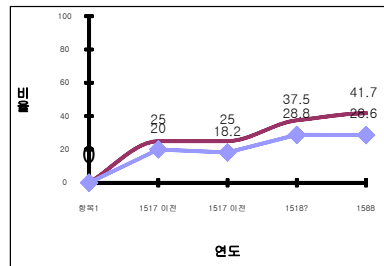
25) ‘중앙 지역에서 간행되어 중앙 방언이 반영된 문헌’은 ‘중앙 문헌’, ‘개인어나 중

해』는 경상도 관찰사인 김안국이 간행한 지방본인데, 『초발심자경문언해』도 전라도 송광사에서 간행된 지방본이라는 공통의 문헌적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번역소학』과 『소학언해』는 중앙에서 여러 명의 편찬자가 참여하여 간행된 중앙본으로, 특히 『소학언해』는 중앙 관청이 교정청(校正廳)에서 간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의 두 문헌은 지방 방언이 반영되어 어두와 ‘ㅇ \$ㄹ’에서 70%의 비율을 보이지만, 후자의 두 문헌은 중앙 방언이 반영된 까닭에 30% 내외의 비율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1. 지방 문헌>



<그림 2. 중앙 문헌>



4. 근대국어의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

4.1. 17세기의 ㄹ→ㄴ 현상

17세기 문헌 대부분에서는 16세기의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을 이어받은, 매우 활발한 변화가 진행된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90% 이상 실현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문헌에 따라서는 20%도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문헌의 성격에 따라 확산 비율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

양 이외의 지역 방언이 반영된 문헌은 ‘지방 문헌’으로 부르고자 하며, ‘개인이나 중앙 이외의 지역 방언’도 ‘지방 방언’으로 줄여서 사용한다.

두와 어중 ㄹ→ㄴ 현상의 비례적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17세기의 각 문헌에서 나타난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의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5) 17세기 문헌의 ㄹ→ㄴ 현상 관련 비율

음운 환경	어두 /#ㄹ/			어중 /C\$ㄹ(ㅇ\$ㄹ)/		
	ㄴ	ㄹ	비율(%)	C-ㄴ (ㅇ-ㄴ)	C-ㄹ (ㅇ-ㄹ)	비율(%)
『안해두장집 요』 (1608)	90	3	96.8	96(39)	8(1)	92.3(97.5)
『안해태산집 요』 (1608)	48	2	96	61(9)	1(0)	98.4(100)
『연방지단』 (1612)	46	0	100	13(2)	2(0)	86.7(100)
『동국신속삼 강역실도』(1617)	1,290	41	96.9	871(698)	87(12)	90.9(98.3)
『여훈언해』 (1629-30)	39	11	78	22(10)	5(0)	81.5(100) ²⁶⁾
『관남요목』 (1637)	7	31	18.4	5(2)	35(15)	12.5(11.8)
『경민관언해』 (1636)	31	0	100	22(9)	1(0)	95.7(100)
『노경대언해』 (1670)	45	6	88.2	33(2)	14(1)	70.2(66.7)
『박봉사언해』 (1677)	39	3	92.9	24(3)	15(0)	61.5(100)

(5)에 제시된 문헌 대부분에서는 어두나 어중의 ㄹ→ㄴ 현상이 90% 전후나 그 이상이 진행된다. 단지, 몇 개의 문헌에서만 80% 전후나 20% 이하의 비율이 확인된다. 특히, 17세기 전반기 문헌에서 확산 비율이 90% 전후나 100%에 근접한 비율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지방 문헌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16세기 후반기 문헌 중에서 지방 방언이 반영된 『정속언해』와 『초발심자경문언해』의 70%대 비율을 이은 것으로 판단된다. 30~40년의 시차를 두고 20~30%가 오르는 상승세가 나타난다.

26) 일정한 개수가 되면 단순화 과정을 거친 비율과 어휘의 발생 빈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훈언해』를 대표적으로, 반복된 어휘를 하나로 치환한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면, 어두에서 #ㄹ이 5개, #ㄴ이 19개로 79.2%의 비율이 되며, 어중에서는 C-ㄹ이 4개, C-ㄴ이 16개로 72.7%의 비율을 보인다. 도표 (6)의 78%와 81.5%와 비교해도, 어두와 어중의 확산 추이를 살펴보거나, 비례적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17세기 전반기 문헌의 『여훈언해』는 중앙 문헌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16세기 후기의 『초발심자경문언해』 등과 연결하지 않고 『번역소학』와 『소학언해』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여훈언해』의 80% 전후의 비율은 40여 년의 격차를 두고 40~50%의 비율만큼 상승된 것이다. 또한 『경민편언해』의 90% 전후나 100%에 근접한 비율로 보건데, 약 30년의 간격 동안 20%의 비율만큼 상승된 것이며, 이전보다도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비슷한 시기라 할지라도 중앙 문헌과 지방 문헌에서 나타난 상승의 기울기는 이처럼 서로 다르다. <그림 1>에서 제시된 16세기의 지방 문헌의 가파른 상승세가 17세기 전반기 문헌에도 이어지지만 완만한 기울기로 바뀌는데 반하여, <그림 2>에 제시된 16세기 중앙 문헌의 완만한 기울기는 17세기 전반기까지 급속히 상승하는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는 상이한 추세로 나타난다. 17세기 후기에서도 지방 문헌에서는 상승세가 정체되지만, 중앙 문헌에서는 『여훈언해』와 『경민편언해』에서 보듯이 완만한 상승세가 적용되는 상이한 추세가 확인된다.

그런데, 가파른 상승세에 포함된 『여훈언해』를 제외하면 어두의 ㄹ→ㄴ 현상과 어중의 ㄹ→ㄴ 현상에 반영된 비율에 미세한 차이가 감지된다. 대략 10% 전후로 어두의 ㄹ→ㄴ 현상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90% 전후나 100%에 근접한 비율이 나타나는 지방 문헌에서 주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며, 10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 『경민편언해』(1656)를 포함한 중앙 문헌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노걸대언해』(1670)와 『박통사언해』(1677)에서는 그 수치가 더 벌어진다.

『권념요록』(1737)은 전라남도 구례의 화엄사에서 개관된 지방본이므로, 지방 문헌인 『연병지남』 등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확산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경향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어두나 어중의 ㄹ→ㄴ 현상 모두 20%를 넘지 못한다. 『권념요록』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는 원인은 지방에서 간행된 문헌적 성격에 기인하지 않는다. 이 문헌에는 어두와 어중에서 ‘삼 련<권념 27b, 年>, 령호-<권념 20a, 念>, 령불<권념 21a, 念佛>, 룡히<권념 34a, 能->’ 등처럼 음절초가 ‘ㄴ’인 한자음을 ‘ㄹ’로 표기한 과잉표기가 나타나는데, 한자의 대표음에 관련된 편찬자의 언어 의식이

영향을 끼친 것을 판단된다. 한자의 대표음, 여기서는 ‘ㄹ’을 유지한 한자음을 표기에 반영하려는 편찬자의 언어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낮은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신성철 2018: 170).

17세기 문헌에서도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은 비례적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확산 비율이 90%나 100% 근접한 문헌에서나 80% 전후 또는 20%의 전후를 보이는 문헌에서도 어두와 어중의 비율은 비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5)에 보듯이 어두의 비율이 높으면 어중도 높고, 어두가 낮으면 어중도 낮게 나타난다. 또한 ‘ㅇ\$ㄹ’ 이외의 ‘C\$ㄹ’ 환경에서도 급속한 변화가 확인된다. 도표 (3)에 제시된 16세기 후반기 문헌에서는 해당 용례가 한두 개씩 나타나지만, 17세기 문헌에서는 90% 전후의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17세기 문헌에 나타난 각 ‘C\$ㄹ’의 빈도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17세기 문헌의 용례 계량화

음운 환경	ㄱ\$ㄹ		ㅂ\$ㄹ		ㄷ\$ㄹ		ㄴ\$ㄹ		ㅇ\$ㄹ		#ㄹ			
	ㄱㄹ	ㄱㄴ	ㅂㄹ	ㅂㄴ	ㄷㄹ	ㄷㄴ	ㄴㄹ	ㄴㄴ	ㅇㄹ	ㅇㄴ	ㄹ	ㄴ		
『연해두창집요』 (1608)	1	29		1	2		2 (ㄹㄹ:1)	20		8	1	39	3	90
『연해태산집요』 (1608)	1	35		2				14		1		9	2	48
『연명지남』 (1612)				2			2	7		2		2		46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617)	3	69		3		2	46(ㄹㄴ:5/ ㄹㄹ:19)	65	2	34	12	698	41	1,290
『여훈언해』 (1620-30)		5				2	5	3		2		10	11	39
『연년요록』 (1637)	11			3		1	4	2	1	1	15	2	31	7
『경민권언해』 (1656)		1					1	8		4		9		31
『노걸대언해』 (1670)	4	12		2	5	4	1	3	12	1	1	2	6	45
『박봉사언해』 (1677)		6		1	14		1	13		1		3	3	39

(6)의 도표를 보면 17세기 초기 문헌에서 해당 용례들이 급속히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물론, 초기 문헌 대부분은 16세기 후기의 『초발심자경문언해』 등에 나타난 확산 추이가 이어져, ‘ㄹ\$ㄹ’ 환경을 제외한 각각의 음운 환경에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여훈언해』에서도 ‘ㄴ\$ㄹ’ 환경을 제외한 ‘ㄱ\$ㄹ’, ‘ㅁ\$ㄹ’ 환경 등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16세기 후기의 『소학언해』 등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나 『권념요록』은 다른 문헌들과 달리 대부분 ‘C-ㄹ’로 나타나는데, 한자의 대표음을 표기에 반영하려는 편찬자의 언어 의식이 ‘#ㄹ’뿐만 아니라 각 ‘C\$ㄹ’ 환경에도 적용된 것이다.

4.2. 18세기의 ㄹ→ㄴ 현상

18세기 문헌의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에 대한 빈도와 비율에서는 17세기 문헌에서 보이던 성격과 경향이 고착화된다. 우선, 문헌의 성격에 따라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의 빈도와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18세기 전체에서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에 대한 비율이 지니는 의미를 검토하기로 한다. 18세기 문헌에 나타난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7) 18세기 문헌의 ㄹ→ㄴ 현상 관련 비율

음운 환경 문헌	어두 /#ㄹ/			어중 /C\$ㄹ(ㅇ\$ㄹ)/		
	ㄴ	ㄹ	비율(%)	C-ㄴ (ㅇ-ㄴ)	C-ㄹ (ㅇ-ㄹ)	비율(%)
『오륜전비언해』 (1721)	26	0	100	5(2)	1(1)	83.3(66.7)
『어제내훈』 (1736)	72	124	36.7	49(29)	47(16)	51.0(64.4)
『여사서언해』 (1736)	221	95	69.9	104(34)	20(2)	83.9(94.4)
『어제상훈언해』 (1745)	6	33	15.4	3(0)	11(5)	21.4(0)
『천의소감언해』 (1756)	636	9	98.6	389(154)	61(2)	86.4(98.7)
『종덕신편언해』 (1758)	319	23	93.3	150(84)	48(3)	75.8(96.5)
『삼익총해』 (1774)	62	2	96.9	36(16)	11(0)	76.6(100)

『명의록언해』 (1777)	471	31	93.8	279(149)	32(0)	89.7(100)
『증수무원록언해』(1792)	0	206	027	12(5)	96(23)	11.1(17.9)
『중간노걸대언해』(1795)	28	2	93.3	34(1)	1(0)	97.1(100)
『오륜행실도』 (1797)	251	17	93.7	81(47)	43(1)	65.3(97.9)

(7)은 18세기 문헌 자료에 나타난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의 빈도와 비율 등을 계량화한 것이다. 대부분 문헌들이 90% 전후의 비율을 보이지만, 『어제내훈』, 『여사서언해』, 『어제상훈언해』과 『증수무원록언해』 등에서 50% 이하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들이 기본적으로 중앙 관청에서 간행된 문헌이므로, 17세기의 『경민편언해』 등의 중앙 문헌과 비슷한 비율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제내훈』, 『어제상훈언해』는 제목에서 보듯이 ‘어제류’로 분류된다. 『여사서언해』의 이칭인 『어제여사서언해』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영조의 명에 의해 편찬된 것이므로 ‘어제류’에 포함된다. 이 세 문헌은 제작에 참여한 편찬인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문헌의 간행에 참여한 편찬인의 사회적 계층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신성철 2018: 171-172).²⁸⁾ 즉 세 문헌의 낮은 비율은 확산이 널리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로 판단되는데, 어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정제 이후의 경향과는 달리, 어두의 ㄹ→ㄴ 현상의 비율보다 어중의 ㄹ→ㄴ 현상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앙 문헌이나 지방 문헌의 초기 단계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증수무원록언해』에서는 ‘兩’의 음을 ‘냥’으로 인식한 것과 더불어, 한자의 대표음을 표기에 그대로 반

27) ‘兩’의 음을 ‘냥’로 처리한 수치이다.

28) 김주필(2004)에서는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를 계량화하여 그 확산 비율을 살펴 보는데, 18세기 왕실의 언어가 반영된 왕실 자료보다 중인인 역관이 관련된 역서류 문헌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구개음화에서는 『박통사신석언해』(1754)가 51.65%, 『중간노걸대언해』(1795)가 96.92%이지만, 17세기 중기 문헌인 『어제』과 『경세문답』에서 8.66%, 17세기 후기 문헌인 영조의 『운음』에서는 88.9%의 확산 비율이 나타난다(김주필 2004: 49). 즉 편찬인의 성격에 따라 확산 비율이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영하려는 편찬자의 언어 의식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兩’은 ‘냥’으로만 표기되는데, 일반 명사, 관형사, 의존 명사 등으로 79회 사용된다(신성철 2018: 172).

위의 네 문헌을 제외하면 나머지 문헌은 90% 전후나 100%에 근접한 비율이 나타난다. 그러나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에 나타난 비율을 비교하면, 20% 전후의 격차가 확인된다. 17세기 후기문헌인 『노걸대언해』(1670)와 『박통사언해』(1677)에 보이던 격차가 이어진 것이며, 90% 전후나 100%에 근접한 비율,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이러한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0% 전후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에 대해 언중이 동일한 인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체기에 도달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어두의 ㄹ→ㄴ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긴 것이라면, 어중의 ㄹ→ㄴ 현상은 그렇지 않은 현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8) 18세기 문헌의 용례 계량화

음운 환경 표기 문헌	ㄱ\$ㄹ		ㅂ\$ㄹ		ㄷ\$ㄹ		ㄴ\$ㄹ		ㅇ\$ㄹ		#ㄹ			
	ㄱㄹ	ㄴㄹ	ㅂㄹ	ㅃㄹ	ㄷㄹ	ㄸㄹ	ㄴㄹ	ㄴㄴ	ㅇㄹ	ㅇㄴ	#ㄹ	#ㄴ		
『오문전비언해』 (1721)								2		1	1	2	26	
『어제내훈』 (1736)	15	4	1	1	1		11 (ㄱㄹ:1)	5	2	10	16	29	124	72
『여사시언해』 (1736)	6	20	1	3	2	1	9	30		16	2	34	95	221
『어제상훈언해』 (1745)	1	1	1				3		1	2	5		33	6
『권의소감언해』 (1756)		80		2		19	59	90		44	2	154	9	636
『종덕신편언해』 (1758)	2	14		12		2	43	21		17	3	84	23	319
『삼역총해』 (1774)		3		3			4 (ㄱㄹ:7)	11		3		16	2	62
『명의록언해』 (1777)	2	50		6		6	27	31		37	3	149	31	471
『증수무원록언해』(1792)	9	1	16		8	3	38	1	2	2	23	5	206	0
『중간노걸대언해』(1795)		9		10		1	1	13				1	2	28
『오문행실도』 (1797)	1	6	2	4			39	15		9	1	47	17	251

8)의 도표를 보면 어중의 C\$ㄹ과 어두의 #ㄹ 환경 등에서 'C-ㄹ, #ㄹ'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차이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ㄹ\$ㄹ에서는 ㄹ-ㄹ 표기가 우세하게 나타나나, ㄹ\$ㄹ에서는 ㄹ-ㄹ 표기가 우세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보인다. ㄹ\$ㄹ 환경에서는 ㄹ-ㄹ 표기가 다수 나타나기는 하지만, ㄹ\$ㄹ이 표기에 그대로 반영된 용례도 최대 79.6%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ㄹ\$ㄹ 환경에서도 ㄹ\$ㄹ 이외의 환경과 달리 'C-ㄹ' 유형이 16세기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고 17세기 전반기부터 그 용례가 확인되는 시차가 드러난다. 이를 보면,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동안 '어두와 어중 ㄹ→ㄹ 현상'이 모든 환경에서 균질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5. 결론: 요약 및 제시

지금까지 15세기부터 18세기 문헌을 중심으로 어두와 어중의 ㄹ→ㄹ 현상을 살펴보았다. 어두와 어중의 ㄹ→ㄹ 현상의 빈도와 비율에서는 동일한 확산 추이가 드러난다. 어두의 ㄹ→ㄹ 현상의 확산 비율로 본다면 16세기의 중앙 문헌에서는 완만한 확산 경향, 지방 문헌에서는 급속한 상승세, 17세기에는 각각 급속한 상승세, 90% 이상의 확산 유지 경향, 18세기에는 중앙 문헌이나 지방 문헌에서 90% 이상 유지되는 확산 경향이 나타난다. 어중의 ㄹ→ㄹ 현상의 빈도와 비율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특히, 어중의 ㄹ→ㄹ 현상 중에서 'ㅇ\$ㄹ' 환경에 나타난 확산 추이는 발생 시기와 과정 그리고 상관관계 등에서 매우 동질적이다. 15세기 국어에서 한두 어휘에서만 발생하는 것, 16세기 이후의 점진적 확산 추이와 비례적 상관관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비례적 상관관계는 17세기를 거쳐 18세기에서도 확인되는데, 어두와 어중의 ㄹ→ㄹ 현상이 상이한 음운 현상이라면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두 현상의 입력형과 출력형이 도출되는 방향(ㄹ→ㄹ)이 같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음운이 앞에 있고, 영향을 받는 음운이 뒤에 놓이는 순행적 현상이라는 공통점도 지닌다. 또한 휴지 '#과 자음 'C'가 하

나의 적용 환경이라면, 두 현상은 하나의 음운 현상이 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어두의 ㄹ→ㄴ 현상이 나타나는 음운 환경을 기호화하여 나타내면 '#ㄹ'이며, 어중의 ㄹ→ㄴ 현상이 발생하는 음운 환경은 'C\$ㄹ'이 된다. (10)과 같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데, 이를 'ㄹ 비음화'로 부르고자 한다.

(9) 가. 소위, ㄹ 두음법칙(어두의 ㄹ→ㄴ 현상)

ㄹ → ㄴ / # ___

나. ㄹ 비음화(어중의 ㄹ→ㄴ 현상)

ㄹ → ㄴ / C ___

(10) ㄹ 비음화 현상

ㄹ → ㄴ / $\begin{matrix} C \\ \# \end{matrix} \left\{ _ \right\}$

(9)의 소위 'ㄹ 두음법칙'과 'ㄹ 비음화'는 형식이 동일하며, 'ㄹ' 앞에 오는 음운 환경이 휴지 '#'이나, 자음 'C'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휴지 '#'은 음절말 평폐쇄음화에서도 자음 'C'와 동등한 자격으로 작용한다. 음절말 평폐쇄음화는 '빛+도, 빛+과'이나 단독의 '빛'이 각각 [빈또], [빈파], [빈] 등으로 발음될 때, 'ㅈ'이 'ㄷ'으로 바뀌는 현상 등을 일컫는데(배추채 1992)29), 이때 후행의 'ㄷ, ㄱ'과 같이 '#'도 'ㅈ→ㄷ' 변화가 나타나는 음운론적 조건이 된다. 김주필(1995: 75-76)에서는 '낫+도, 낫+도, 낫+도'가 [난또], '낫고, 낫고'가 [난꼬], '낫, 낫, 낫'이 [난]으로 실현되는데, 체언이나 용언에서 자음이나 휴지가 오는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을 발생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지와 자음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단지, 이때의 '#'과 후행 자음은 선행의 자음을 비슷한 성질의 다른 자음으로 변화하는, 음운 범주를 바꾸는 동화 현상이 아니며, 음절말 평폐쇄음화

29) 엄밀히 하자면, 배추채(1992: 200-202)에서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잠재 휴지에 서 잠재적 음절경계(S)가 발생하며, 음절말 평폐쇄음화는 여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다.

가 발생하는 음운 환경으로 작용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9)의 두 규칙에서 음운 환경으로 설정된 ‘#’과 선행 자음 ‘C’도 후행의 ‘ㄹ’에 동화 현상을 발생하여 ‘ㄴ’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이 아니며, 이들은 오로지 ‘ㄹ→ㄴ’ 현상을 일으키는 음운론적 조건일 뿐이다. 음운 환경인 휴지 ‘#’과 자음 ‘C’를 하나로 묶어 제시하면 (10)의 음운 규칙이 된다.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기존의 ‘ㄹ 비음화’의 외연을 넓혀 사용하되, 혼동이 여지가 있다면, 음운론적 위치를 덧붙인 ‘음절초 ㄹ 비음화’라 하면 될 것이다.

한편, ㄹ 비음화의 음운 환경인 ‘#’과 ‘C’에 오는 자음부류에 따라 확산 비율과 확산 추이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난다. 15세기에는 ‘#ㄹ’과 ‘ㅇ \$ㄹ’에서 나타나며, 16세기 초기에는 ‘ㄱ\$ㄹ’로, 16세기 후반기에는 ‘ㅂ\$ㄹ, ㄴ \$ㄹ, ㅁ\$ㄹ’ 등 ‘ㄹ\$ㄹ’을 제외한 음운 환경으로 확산이 전파된다. 음운 현상의 확산 과정이 자음부류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견해는 음운 현상에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 이미 주장된 바가 있다. 이기문(1972: 97, 133-135)에서는 중화(현대국어의 ‘음절말 평폐쇄음화’)가 통시적으로 자음부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한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³⁰⁾ 송민(1986: 132-134, 1994: 36-39)에서는 ‘.’의 비음운화가 자음부류에 따라 확산되는 내면적 과정을 가진다는 견해를 밝혔다.³¹⁾ 이러한 견해들을 고려한다면,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도 개별적인 음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음운 현상에서 발생된, 그러나 음운 환경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파되어 확산되는 내면적 과정을 보인 것으로 이

30) 이기문(1972: 97)에서는 ‘13세기 중엽에 어간말 자음의 대립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등이 있었’다고 하여 전기 중세국어에는 11개의 어간말 대립이, 이기문(1972: 133-134)에서는 ‘15세기 중엽에는 9자음의 대립이 있었다’고 하여 후기 중세국어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등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다.

31) 송민(1986: 132-134, 1994: 36-39)에서는 ‘.’의 비음운화가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의 자질로 묶이는 ‘ㅎ, ㄱ, ㅅ’와 같은 자음부류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제1단계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을 지나 제2단계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로 확산되며, 제3단계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제4단계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제5단계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의 내면적 과정을 거치면서 비음운화가 완성된 것으로 설명한다.

해된다.

17세기와 18세기 문헌에서는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이 일정 비율이 이르면 언중들은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자세한 풀이를 하지 않고, ‘상승세가 완만해지는 정체기에 도달하면, 어두의 ㄹ→ㄴ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어중의 ㄹ→ㄴ 현상은 그렇지 않은 현상으로 인식한 것’이라는 잠정적인 기술만 덧붙였다. 현대국어에서 어두와 어중의 ㄹ→ㄴ 현상에 대해 개별적인 음운 현상으로 판단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로 간주된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1995), 『증보 조선관역어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권인한(1998),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 김동례(1997), 「두자음 ㄴ, ㄹ, ㄴ(Zero)의 음운론적 재고」,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175-185.
- 김성욱(2014), 「두음법칙의 표기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88, 한국언어학회, 5-27.
- 김정남(2009), 「漢字語의 한글表記에 나타나는 頭音法則과 그 例外 條項에 대한 考察」, 『어문연구』 3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3-90.
- 김주필(1995), 「두음법칙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65-84.
- 김주필(2004), 「18세기 역서류 문헌과 왕실 문헌의 음운 변화-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2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9-57.
- 김진우(1976), 「Rule ordering in Korean Phonology」, 『언어』 1-1, 한국어언어학회, 60-83.
- 김혜영(1996), 「국어 유음의 통시적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덕유(2011),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353-375.
- 배양서(1973), 「所謂 頭音法則의 處理法」, 『국어국문학』 61, 국어국문학회, 111-114.
- 배양서(1979), 「소위 1~n 교체의 실상」, 『언어』 4-2, 한국어언어학회, 13-17.
- 배주채(1992),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81-204.
- 배주채(2003), 「漢字語의 構造와 頭音法則」, 『語文研究』 3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1-50.
- 변용우(2004), 「두음법칙의 형태적 제약」, 『불교어문논집』 9, 한국불교어문학회, 199-229.

- 서보월(1991), 「국어 자음연계에서의 음운 현상과 제약」,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낙수(1987), 「이른바 한국어의 두음 법칙 연구」, 『한글』 197, 한글학회, 3-39.
- 송민(1986), 『전기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탑출판사.
- 송민(1994), 「근대국어의 음운론적 인식」, 『동양학』 2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5-42.
- 신성철(2014), 「근대국어 유음화 재고」, 『어문연구』 4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5-79.
- 신성철(2015), 「근대국어 순행적 유음화 재고」, 『국어학』 73, 국어학회, 109-139.
- 신성철(2017), 「ㄹ 비음화의 통시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102, 한국언어문학회, 53-89.
- 신성철(2018), 「ㄹ 두음법칙의 통시적 고찰」, 『국어학』 85, 국어학회, 151-179.
-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 엄태수(2007), 「‘ㄹ’초성 漢字語의 음운현상과 어휘표시」, 『국제어문』 41, 국제어문학회, 255-281.
- 여채려·김양진(2015), 「한자어 단어 구성에서의 두음법칙과 경음화」, 『어문논집』 73, 민족어문학회, 157-181.
- 오종갑(1988), 『국어 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기문(1968), 「조선관역어의 종합적 검토」, 『논문집(인문.사회과학)』 14, 서울대학교, 43-79.
- 이기문(1972), 『개정판 국어사개설』, 민중서관(1978: 탑출판사).
- 이기문(1978), 『16세기 국어의 연구』, 탑출판사.
- 이동석(2005), 「형태소 내부의 순행 비음화 현상에 대하여」, 『언어학연구』 9, 한국중원언어학회, 117-138.

- 이진호(1998), 「국어 유음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31, 국어학회, 81-120.
- 이진호(2008), 「‘독립(獨立)’류 한자어의 음운론」, 『한국문화』 4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16.
- 임동식(2011), 「한국 한자음의 두음법칙과 문제점 고찰」, 『중국어언어연구』 제 36집, 중국언어연구회, 1-19.
- 조규태(1999), 「두음법칙 표기에 대하여」,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293-310.
- 조규태(2009), 「낱말머리 “ㄹ” 표기의 바뀌어옴에 대하여」,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69-109.
- 허 응(1958), 『國語音韻論』, 정음사.
- 허 응(1964), 改稿新版 『국어음운학』, 정음사.
- 홍윤표(1993), 『국어사 문헌 자료 연구(근대편 I)』, 태학사.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Abstracts】

The Diachronic Study on R → N Phenomena of Word-Initia and Word-Mediall: R-nasalization and Statistical approach

Shin, Seongcheol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at R → N phenomenon that diachronically occurs in Word-Initia and Word-Mediall is a phonological phenomenon. The direction of input and output of R → N phenomenon of Word-Initia(below, R-initial law) and R → N phenomenon of Word-Mediall(below, R-nasalization) (R→N) is the same. Also, considering the common progressive development where the influential syllable is in the onset and influenced syllable is in the coda, they are the same phonological phenomenon instead of two separate phenomena. A similar trend is shown between in R → N phenomenon of the two phenomena in terms of frequency and ratio. As for diffusion ratio of R-nasalization, central literature of the 16th century shows gentle diffusion and regional literature shows a rapid increase. They respectively show a rapid increase and ratio over 90% in the 17th century. Both central literature and regional literature show ratio over 90% in the 18th century. Such flow also appears with frequency and ratio of R-initial law. And if R-initial law is high, R-nasalization is high, and if R-initial law is low, R-nasalization also appears low. The proportional correlation is confirmed. The phonological environment of R-initial law can be symbolized as '#R', and the phonological environment of R-nasalization becomes 'C\$R'. They can be combined as below. The

combined form is referred to as ‘R-nasalization.’

1) So-called, R-initial law(R → N phenomenon of Word-Initial)

$\text{ㄹ} \rightarrow \text{ㄴ} / \# \text{ ______}$

2) R-nasalization(R → N phenomenon of Word-Medial)

$\text{ㄹ} \rightarrow \text{ㄴ} / \text{C} \text{ ______}$

Combined) R-nasalization

$\text{ㄹ} \rightarrow \text{ㄴ} / \left\{ \begin{array}{c} \text{C} \\ \# \end{array} \right\} \text{ ______}$

Key words : R-Initial Law, R-nasalization, Statistical approach, diffusion trend, Correlation

이 논문은 2019년 06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